

##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과의 관계: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의 연속매개효과\*

김 락 경

성안드레아병원 임상심리과

김 은 정<sup>†</sup>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325명의 대학생들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인지적 취약성, 경험회피, 그리고 우울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 증상의 관계를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연속매개하였다. 또한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경험 수용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둔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학대, 성인기 우울, 인지적 취약성, 경험회피

---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E-mail : kej@ajou.ac.kr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최근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로 나타나며(48.0%),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중복 응답을 포함한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전체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38.2%, 방임 16.1%, 그리고 성학대 2.6%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이 포함되는데, 국내외적으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에 비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욱 흔하고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성적 학대만큼이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우울(김은정, 김진숙, 2008;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Sachs-Ericsson, Verona, Joiner, Preacher, 2006; Wright, Crawford, Del Castillo, 2009), 불안(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Harkness, Wildes, 2002; Sachs-Ericsson 등, 2006; Shahar, Doran, & Szepeswol, 2015; Wright 등, 2009), 사회적 능력의 손상(김현주, 2002; 조은정, 2004), 성격 장애(Johnson, Cohen,

Smailes, Skodol, Brown, & Oldham, 2001)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는 우울과 가장 일관되게 연관된다(Gibb, Chelminiski, & Zimmerman, 2007; Wright 등, 2009). 하지만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우울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관성에 원인이 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선행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된 한 가지 기제는 인지적 취약성이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아동 자신이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우울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Briere(1992)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시간이 지나서 학대자의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그 학대가 마땅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학대가 만성적일 때, 아동은 이런 학대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거나 자신 내부의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 학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추론은 다른 부정적인 사건으로 일반화된다. 이러한 일반화는 학대받은 아동이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은 피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의 부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완전히 믿도록 만든다(Coates, Messman-Moore, 2014). 이런 일반적인 부정적 추론 양식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우울에 취약하게 만든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된 또 다른 기제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능력이다. 아동은 자신의 양육자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Saarni, 1999). 즉 아동은 그들의 양육자가 정서를 인정하고, 명명하고, 반영하는 것을 보고 정서를 배우며, 양육자가 감정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서경험을 받아들이는 전략들을 학습한다(Thompson, Flood, & Lundquist, 1995). 따라서 기본적인 정서 이해의 발달과 정서 조절 능력은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이는 심리적 학대로 손상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김은정, 김진숙, 2008;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Burns, Jackson, & Harding, 2010; Shenk, Griffin & O'Donnell, 2015).

Aldao, Nolen-Hoeksema와 Schweizer(2010)는 수용, 회피, 문제해결, 재평가, 반추, 억압 이 6 가지 정서조절 전략 중 회피, 반추, 억압을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반추와 억압은 회피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반추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만든다(Jacobson, Martell, & Dimidjian, 2001). 또한, 반추는 과거의 상실이나 실패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이기 보단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과거의 상실이나 실패에 몰두하기 때문에 인지적 회피 전략으로도 기능한다고 제안된다(Dickson, Ciesla, & Reilly, 2012; Moulds, Kandris, Starr, & Wong, 2007). 또 다른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언급된 억압 역시 회피

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억압 전략의 순수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Wolgast, Gunnar Lundh & Viborg, 2013). 종합하면 흔히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전략으로 언급되는 반추와 억압은 회피전략과 일맥상통하며, 더 크게는 경험회피의 틀 안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 가능해진다.

경험 회피는 개인이 특정 신체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의 내적 경험을 기꺼이 경험하기를 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경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성으로 이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Barnhofer, Brennan, Crane, Duggan과 Williams(2014)는 지속적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와 우울의 관해 경과를 경험하는 환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들의 인생 초기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 지속적인 우울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유의미하게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더 높은 수준의 경험 회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경험 회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 증상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이후 성인기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증상이 관해되지 못하고 만성화되는데 있어 경험회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oates와 Messman-Moore(2014)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정서조절곤란이 병렬적 매개효과를 나타낼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 취약성과 정서조절곤란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 증상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Coates 등

(2014)은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학대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통제 상황에도 확장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위한 개인의 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추후 두 매개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Palm과 Follette(2011)는 대인간 괴롭힘(Interspersal Victimization)의 과거력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유연성과 경험 회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인지적 유연성은 개념적으로 귀인 양식 및 인지 양식에 대한 구성개념과 유사하다(Palm & Follette, 2011). 연구 결과, 경험 회피는 인지적 유연성과 우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고, 경험 회피는 또한 인지적 유연성과 PTSD 심각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용래(2013)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대처전략이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정서증상(우울/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과 동시적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인지와 회피대처가 상당부분 중복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 증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되는 한 가지 기제는 인지적 취약성이며, 또 다른 한 가지 기제는 경험회피이다. Coates 등(2014)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기제의 병렬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이 이후 정서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oates 등(2014)의 연구를 확장하여, 성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 증상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연속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인지적 취약성을 매개로 하여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성인기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모형은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으로써 그림 1과 2와 같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형비교를 위해 경쟁모형을 세웠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어(Coates, Messman-Moore, 2014), 인지적 측면과 정서조절 측면을 병렬적으로 구성한 구조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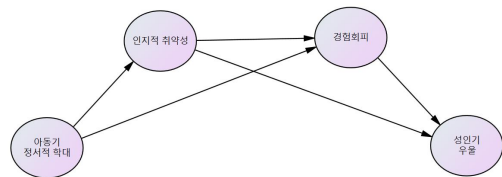


그림 1.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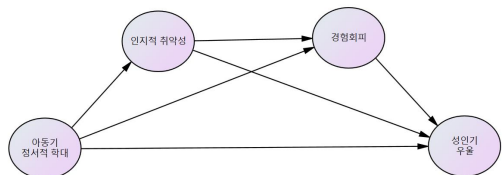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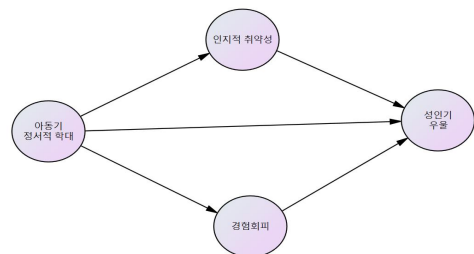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6-HB-002)을 받은 후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31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남성은 147명(46.1%), 여성은 172명(53.9%)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76세( $SD=2.18$ )였다.

### 측정도구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1992)가 제작한 아동 학대 척도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 문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 행동차원의 학대 영역으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어린 시절에 받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18세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표시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로(한 번도 없었음=1~자주 경험함=4)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정서적 학대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인지적 취약성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Abramson과

Metalsky(1989)가 개발한 인지양식 질문지(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SQ)를 유정현과 현명호(2010)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12가지 생활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시나리오에 포함된 사건들은 수업이나 연인관계와 같이 주로 대학생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 포함된 가상적인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한다. 그 다음 부정적 생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을 내외성(원인이 주위 환경 탓인지 아니면 자신 탓인지의 정도), 통제성(원인이 삶의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정도), 안정성(원인이 일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인지의 정도) 차원에 따라 7점 척도로 응답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하는지(결과), 그리고 부정적 생활사건은 자신이 결점이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지(자아가치)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한다. 인지양식 점수는 12개 문항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인지양식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다. 높은 점수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정현과 현명호(2010)의 연구에서 인지양식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하위 인지양식 각각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원인 인지양식 .87, 결과 인지양식 .83, 자아가치 인지양식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지양식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4였다. 각 하위 인지양식 별로는 원인 인지양식 .90, 결과 인지양식 .87, 자아가치 인지양식 .89이었다.

### 경험회피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Hayes 등(2004)이 개발한 수용 및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 -16)를 사용하였다. AAQ 문항들은 정서 및 인지적 통제에 대한 높은 욕구, 부정적인 개인 내적 경험에 대한 회피, 개인의 내적 경험을 직면하지 못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Hayes 등, 2004). 국내에서는 문현미(2006)에 의해 번안되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다. Hayes 등(1999)이 제안한 것과 일치하게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기꺼이 경험하기’ 요인과 원치 않는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행동’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16개의 문항은 7점 척도로 평정되며, 16점부터 112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현미(200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2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우울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CES-D)는 우울의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의해 개발되었다. 총 20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우울 척도로서, 우울의 일차 선별용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한 주간에 느꼈던 증상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점=극히 드물게~3점=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통계적 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초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검증을 수행하고, 매개가설 검증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FI, N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5~.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 .1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Cudeck, Bollen, & Long, 1993). CFI, TLI, NFI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적합하다고 간주된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검증 시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연구모형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2$  차이 검증과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은 포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명적합 지수 AIC, BIC, ECVI를 사용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AIC, BIC, ECVI 값은 작을수록 간

명하고 좋은 모델이다(Browne & Cudeck, 1989). 특히 BIC 값이 10이상 차이난다면 두 모형 간에 확실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aftery, 1995).

## 결 과

### 기술통계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남학생 147명(46.1%), 여학생 172명(53.9%) 총 319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

차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인지적 취약성, 경험회피, 우울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분석 결과, 우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경험회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취약성이 더 높았다. 반면 우울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1. 정서적 학대	1			
2. 인지적 취약성	.195**	1		
3. 경험회피	.240**	.403**	1	
4. 우울	.278**	.412**	.461**	1
평균	33.13	3.84	61.73	16.48
표준편차	9.06	0.93	12.52	10.13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남(N = 147)	여(N = 172)	<i>t</i>
	Mean(SD)	Mean(SD)	
정서적 학대	31.97(8.52)	34.12(9.4)	-2.13*
인지적 취약성	3.97(0.94)	3.73(0.91)	2.27*
경험회피	59.85(13.11)	63.34(11.8)	-2.51*
우울	15.63(10.75)	17.21(9.54)	-1.40

\**p* < .05

시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후 성별 분석이 불가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서, 측정 변인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측정모형에는 정서적 학대, 인지적 취약성, 경험회피, 우울 총 4개의 잠재변인이 포함되었다. 검증결과,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84.707, p < .001, CFI = .979, NFI = .953, TLI = .971, RMSEA = .049$ .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 분산, 상관 등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9)=84.388, p < .001, CFI=.977, NFI=.951, TLI=.970, RMSEA=.050$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어서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8)=88.707, p < .001, CFI=.979, NFI=.953, TLI=.971, RMSEA=.049$ 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어서 완전매개효과인지 부분매개효과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은 상호 포함 관계에 있는 모형이므로,  $\chi^2(df)$ 차이 검증을 이용하여 모형들을 비교한다(홍세희, 2000).  $\chi^2(df)$ 차이 검증은  $\chi^2$ 분포표 ( $\alpha = .05$ )와 비교하여,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미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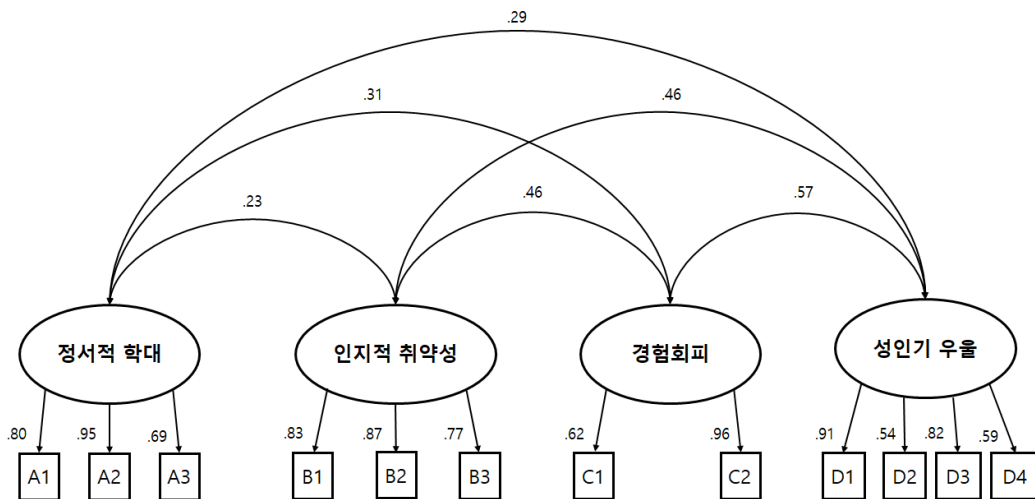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형의 검증

주. A1=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 A2=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 A3=행동차원의 학대 영역, B1=원인, B2=결과, B3=자아가치, C1=기꺼이 경험하기, C2=행동, D1=우울 감정, D2=긍정적 감정, D3=신체 및 행동 둔화, D4=대인관계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3.681$ ,  $\Delta df=1$ ,  $p>.05$ . 이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즉, 정서적 학대가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있는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함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완전매

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각각 표 4와 그림 5, 표 5와 그림 6에 제시되어있다.

매개효과 검증

채택된 완전매개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

표 3.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모형	$\chi^2$	df	CFI	NFI	TLI	RMSEA	$\Delta\chi^2$
완전매개모형	88.388***	49	.977	.951	.970	.050	3.681
부분매개모형	84.707***	48	.979	.953	.971	.049	

\*\*\*  $p < .001$

표 4.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정서적 학대 → 인지적 취약성	.081	.230	.022	3.619***
인지적 취약성 → 경험회피	2.926	.417	.431	6.781***
정서적 학대 → 경험회피	.564	.228	.144	3.925***
경험회피 → 우울	.053	.460	.010	5.283***
인지적 취약성 → 우울	.196	.244	.056	3.49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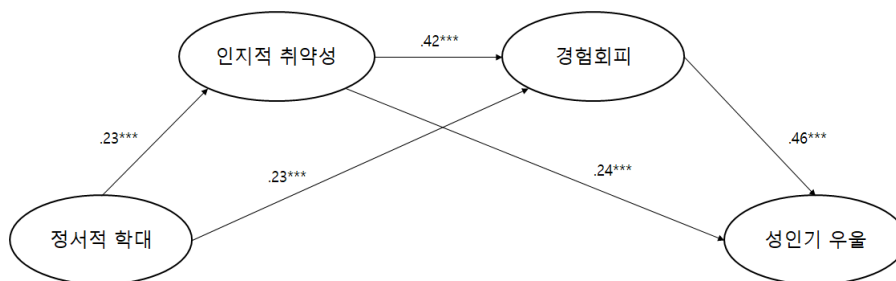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 1 (완전매개모형) 검증

표 5.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정서적 학대 → 인지적 취약성	.080	.225	.022	3.545***
인지적 취약성 → 경험회피	2.932	.412	.432	6.787***
정서적 학대 → 경험회피	.556	.222	.144	3.866***
경험회피 → 우울	.048	.420	.010	4.788***
인지적 취약성 → 우울	.194	.241	.055	3.504***
정서적 학대 → 우울	.030	.107	.016	1.88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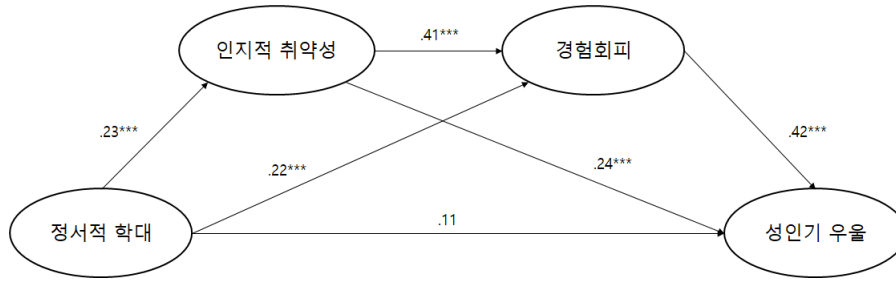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형 2 (부분매개모형) 검증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한다(Shrout & Bolger, 2002). 검증 결과, 정서적 학대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를 통하여 우울로 향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0.240-0.55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매개하는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 신뢰구간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검증

	Estimate(B)	S.E.	95% 신뢰구간	
			lower 95%	upper 95%
전체	0.383	0.079	0.239	0.554
M1	0.082	0.036	0.029	0.174
M2	0.105	0.044	0.036	0.211
M3	0.196	0.063	0.091	0.340

M1. 정서적 학대→인지적 취약성→경험회피→우울, M2. 정서적 학대→인지적 취약성→우울, M3. 정서적 학대→경험회피→우울

표 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CFI	NFI	TLI	RMSEA	AIC	BIC	ECVI
연구모형1	88.388***	49	.977	.951	.970	.050	146.388	255.579	.460
연구모형2	84.707***	48	.979	.953	.971	.049	144.707	257.662	.455
경쟁모형	131.566***	49	.953	.927	.936	.073	189.566	298.756	.596

\*\*\*  $p < .001$

###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포함관계에 있지 않은 모형이므로 AIC, BIC, ECVI와 같은 간명 적합도를 통해 비교하였다. AIC, BIC, ECVI는 작을수록 더 간명하고 좋은 모델이며, BIC 차이가 10이상이면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1, 2와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1과 2의 AIC, BIC, ECVI 값이 경쟁모형의 것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BIC값이 10이상 차이가 나므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어 효율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피함에 따라 결국에는 우울해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부정적인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된다(김은정, 2010; Coates & Messman-Moore, 2014).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모형은 부분매개모형보다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요인과 역기능적인 정서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정, 2010). 본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 증상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연구모형 내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고려될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자체가 성인기 우울 증상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 보다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형성된 부적응적인 인지 양식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대처 기능이 만연해져 결국 우울 증상을 겪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정적인 인지 양식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그 부정적인 결과가 또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형성된 이런 부정적인 인지적 취약성은 정서적 학대 상황 외에 여러 다른 부정적인 사건들에도 일반화되어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생각, 감각 등을 처리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내면에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인지, 감정, 감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억압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내적 경험의 회피를 통해 불편한 사고와 감정들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회피가 만성적으로 사용될 때는 내면에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인지와 정서로 인해 우울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첫째, Coates와 Messman-Moore(2014)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기제로 부정적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두 기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두 기제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라는 두 매개변인 간의 선행적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

를 확장하였다. 둘째, Coates와 동료(2014)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여대생들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남녀 모두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과 정서적 취약성이 연속으로 매개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치료적 개입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인지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험회피를 높여 궁극적으로 성인기에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현재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재귀인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재평가하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부적절하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 사건의 상황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 사건을 유발한 다른 요인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기법이 유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이차트기법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책임감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지 기법 중 하나이다(van Oppen & Arntz, 1994). 파이차트 기법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인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또 다른 기법으로는 ‘누적 확률 계산’이 있다. 이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누적된

발생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Whittal & McLean, 1999). 이를 통해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 다음에도 또 발생할 것이라는 귀인에 도전함으로써 재귀인하도록 훈련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인지적 재구성만으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현재 우울증상을 완전히 낮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인지적 취약성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 사고, 기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사고, 기억을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경험하는 과정이 없다면 또 다시 쉽게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사고, 기억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자각하여 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마음 챙김’(Kabat-Zinn, 1994)이 큰 치료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내적 경험(감정, 사고, 기억, 신체적 감각 등)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할 가치를 명료화하고 이런 가치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용 및 전념 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야기된 우울증상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민정과 김도연(2012)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용-전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치료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갈등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함으로써 ACT를 통한 치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과관계를 밝히는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한 시점에서 횡단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회피가 연속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여러 시점에 걸친 종단적 설계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자는 왜곡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 이외에 인터뷰, 또는 실험 관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해있는 한 대학교의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성인 집단이나 임상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일반 성인 집단뿐만 아니라 임상집단에서 다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우울 변인에 있어서는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나 성별에 따른 조절변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제안된다. 네 번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이후의 성인기 우울 증상을 야기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있어서 현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현재의 우울 상태를 평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참가자의 본래 우울한 특질, 상황적 우울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현재 우울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생활사건 및 우울 생성적 성격 특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 1505-1520.
- 김현주 (2002).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 353-380.
-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민정, 김도연 (2012). 수용-전념 치료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정서인식과 표현 및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557-572.
- 유정현, 현명호 (2010). 한국판 추론양식 척도 (Csq)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243-259.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조용래 (2013).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대처전략이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정서증상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13, 445-467.
- 조은정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217-237.
- Barnhofer, T., Brennan, K., Crane, C., Duggan, D., & Williams, J. M. G. (2014). A comparison of vulnerability factors in patients with persistent and remitting lifetime symptom course of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2-154, 155-161.
-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the lasting effects*. Thousand Oaks, CA: IPN.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rns, E. E., Jackson, J. L., & Harding, H. 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19, 801-819.
- Coates, A. A., & Messman-Moore, T. L. (2014). A structural model of mechanisms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following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38, 103-113.
- Dickson, K. S., Ciesla, J. A., & Reilly, L. C. (2012). Rumination, worry, cognitive avoidance, and behavioral avoidance: Examination of temporal effects. *Behavior Therapy*, 43, 629-640.
- Gibb, B. E., Chelminski, I., & Zimmerman, M. (2007). Childhood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diagnoses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adult psychiatric outpatients. *Depression and Anxiety*, 24, 256-263.
- Harkness, K. L., & Wildes, J. E. (2002). Childhood adversity and anxiety versus dysthymia co-morbidity in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2, 1239-1249.
- Hayes, S.C., Strosahl, K., & Wilson, K.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ur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marino, D.,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Jacobson, N. S., Martell, C. R., & Dimidjian, S. (2001). Behavioral activation treatment for depression: Returning to contextual root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8, 255-270.
-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 (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42, 16-23.
- Kabat-Zinn, J. (1994).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Mindfulness meditation in everyday life*. Hachette UK.
- Moulds, M. L., Kandris, E., Starr, S., & Wong, A. C. 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voidance and depression in a non-clinical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251-261.
- Palm, K. M., & Follette, V. M. (2011). The roles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survivors of interpersonal victimizat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 79-86.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111-163.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achs-Ericsson, N., Verona, E., Joiner, T., & Preacher, K. J. (2006). Parental verbal abuse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in adult in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71-78.
- Shahar, B., Doron, G., & Szepeswol, O. (2015). Childhood maltreatment, shame-proneness and self-criticism in social anxiety disorder: A sequential medi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2*, 570-579.
- Shenk, C. E., Griffin, A. M., & O'Donnell, K. J. (2015). Symptom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subsequent to child maltreatment: Examining change across multiple levels of analysis to identify transdiagnostic risk pathway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 1503-151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Thompson, R. A., Flood, M. F., & Lundquist, L. (1995). *Emotional regulation: Its relations to attach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S. Toth (Eds.), *Emotion,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p. 261-299). Rochester, NY: University Press.
- van Oppan, P., & Arntz, A. (1994).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79-87.
- Whittal, M. L., & McLean, P.D. (1999). CBT for OCD: The rationale, protocol, and challenge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6*, 383-396.
- Wolgast, M., Lundh, L., & Viborg, G. (2013). Experiential avoidance as an emotion regulatory func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relation to behavioral avoidance, cognitive reappraisal, and response suppress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2*, 224-232.
- Wright, M. O.,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and Neglect, 33*, 59-68.
- 원고 접수일 : 2018. 12. 03.  
수정원고 접수일 : 2019. 02. 01.  
게재 결정일 : 2019. 02. 01.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Vulnerabilities and Experiential Avoidance**

**Rak Gyeong Kim**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St. Andrew's Hospital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i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was mediated by cognitive vulnerabilities and experiential avoidance. A total of 325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assess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cognitive vulnerability, experiential avoidance, and dep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cognitive vulnera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a full-mediation model demonstrated a better model fit than a partial-mediation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focusing intervention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l experience acceptance capacity, as well as on cognitive vulnerabiliti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Depression, Cognitive Vulnerability, Experiential Avoidance*